

“지역 예술 활성화·전당 브랜드화 역점”

김상욱 신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문화예술콘텐츠 발전소 역할 강화
융복합 작품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
세계 다양한 국가 작가들과 협업
애프트쇼 소개 전시·공연 개발 노력



“지역의 문화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전시 및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청년작가들에게 전당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최근 취임한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과의 소통, 협력을 매개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더 쉽게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당장은 “전당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이며 전당을 사랑해주신 광주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중학교 시절 광주에 거주하며 5·18민주화운동을 경험하기도 했던 그는 전당과 지역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화예술기관이 ACC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응원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는 ACC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문화예술의 허브이자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비전을 품고 있다. 이는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하는 핵심기관으로서의 비전과도 연계돼 있다.

김 전당장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할 사업에 대해 “개관 10주년인 만큼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더불어 시민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ACC의 브랜드화에 힘쓰겠다”며 “이를 매개로 한국과 아시아에서 ACC의 인지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창작자 문화예술콘텐츠 발전소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예술이 펼쳐지고 다양한 융복합 작품들이 창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예술 레지던시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예술가들과 협업해 아시아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 공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며 “아시아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이해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작품들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예술기관에 소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CC재단과의 협업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일반적으로 ACC가 창작자를 매개로 문화가치를 높이고 광주의 도시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면 재단은 유통·배급 등을 통해 ACC의 창작자 작품을 알리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이에 대해 김 전당장은 “두 기관이 상호협력해 이러한 양 측면을 모두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당장은 시민들과 언론의 관심 외에도 전당의 방향에 대한 조언을 당부했다.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보다 도약할 수 있도록 ACC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관심과 성원, 건설적인 아이디어도 필요하다.”

한편 김 전당장은 1991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문체부 예술정책관, 콘텐츠 정책관, 관광산업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3년 8월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관을 지내다 지난 2월 이강현 전 전당장 퇴임 이후 전당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감미로운 발라드 선율을 그대에게

닐로 단독 콘서트 ‘들려줄게’ 다음달 9일 광주예술의전당

따사로운 봄날, 감미로운 발라드 선율이 광주 시민들의 곁으로 찾아온다.

광주예술의전당은 오는 5월 9일 오후 7시 30분, 싱어송라이터 닐로의 단독 콘서트 ‘들려줄게’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예술의 다양성을 확장하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목표로 마련한 ‘기획공연 포커스’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다.

닐로는 2015년 첫 싱글 ‘바보’로 데뷔한 이후, 대표곡 ‘지나오다’로 온라인 음원 차트 1위, 연간 차트 4위를 기록하며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다. 또 ‘KBS 불후의 명곡’, ‘MBC 복면가왕’ 등 다양한 방송 무대에서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뛰어난 라이브 실력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나오다’, ‘벚’, ‘뉘드리’, ‘너에게’, ‘들려줄게’, ‘스쳐지나’, ‘If you were the only one’, ‘미운 날’ 등 닐로의 주요 곡들을 만날 수 있다. 한층 성숙해진 음악 세계와 감성 짙은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메인 건반 신성진, 세컨드 건반 원혜영, 드럼 황휘구, 베이스 이윤규, 기타 장현호 등 탄탄한 연주진이 함께해 더욱 풍성한 사운드를 완성한다.



가수 닐로.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R석 3만 원, S석 2만 원 등.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및 티켓링크 예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오늘의 시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건강한 교회와 사회 포럼 추진위, 오늘 광주 YMCA서 포럼

한국기독교가 일부 세력에 의해 극단적 근본주의, 극우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목회자들의 정치적 행보와 편향된 목소리 탓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신뢰는 점차 추락하고 있는 추세다.

오늘의 시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사유하고 모색하는 포럼이 마련됐다.

건강한 교회와 사회 포럼 추진위원회는 29일(오후 7시) 광주YMCA 무진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국가관’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한국기독교의 일부 세력에서 드러나는 극단적 근본주의와 극우화 경향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성찰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철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객원교수가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대안적 방향성’을, 김정대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이 ‘교회개혁 현장에서 본 극우 개신교의 전개과정과 그 대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한다.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강성영 호남신학대학교 구약학 명예교수가 각각 논평을 한다.

이어 종합토론, 자유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광주YMCA 사무총장 이윤기, 광주YWCA 사무총장 윤정순의 입장문 발표로 포럼은 막을 내린다.

강성철 광주기독교공공대표는 “포럼을 계기로 하나님의 정의와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국가관을 사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권을 잇다, 평화를 품다’

광주평화포럼, 평화인권시민학당 9월까지 진행

문화와 예술, 동학 등 다양한 부분과 연계한 인권 강좌가 열린다.

(사)광주평화포럼(이사장 김완)이 2025년 평화인권시민학당을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

‘인권을 잇다, 평화를 품다’를 주제로 문화공간 ‘김빛과’(오후 4시)에서 펼쳐지는 이번 평화인권시민학당은 광주시가 주관하고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역위원회와 오월문예연구소가 후원한다.

먼저 23일 첫 강의는 개강식과 아울러 백승중 서강대 명예교수의 ‘역사와 인권’을 주제로 한 강의가 펼쳐졌다.

오는 5월 14일에는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가 ‘이데올로기와 한국사화-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강연한다.

21일 ‘문화와 인권’ 시간에는 조진태, 이승철, 김경희 작가가 참여한다. 조진태 시인과 이승철 시인이 ‘문학, 시대를 만나다’를 주제로 발제, 토론을 하며 김경희 작가는 ‘김수영부터 한강까지’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경숙 시인의 시와 산문 낭송공연도 마련돼 있다.



광주평화포럼은 지난 23일 ‘인권을 잇다, 평화를 품다’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6월 4일에는 최자웅 신부(시인)가 ‘시대정신 무엇 할 것인가-현대사상기를 중심으로’를 강연한다.

동학과 인권을 주제로 한 강연도 펼쳐진다. 6월 18일은 심광섭 한국영성예술협회 원장이 ‘다시 보는 동학과 서학’을 7월 2일은 조성환 원광대 교수가 ‘사상으로 읽는 동학-수운 최제우에서 무위당 장일순까지’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이어 ‘절해고도에서 읽은 인권과 평화 그 오래

된 미래’ (김준 박사, 7월 16일), ‘통섭의 시대와 높은 울타리 안의 예술’(윤범모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9월 10일)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9월 21일은 폐강식 및 답사가 예정돼 있다. 오전 9시부터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봉준 유적 등을 둘러본다. 강주영 전주동학혁명기념관 연구소장이 해설을 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혜순 시인,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 선출

김혜순(70) 시인이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AAAS) 외국 명예회원으로 선출됐다.

27일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에 따르면 김혜순은 올해 신규 회원 248명의 명단에 ‘인문학·예술’ 부문 ‘문학’ 섹션의 신규 회원 8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인 작가가 이 단체 문학 부문 회원으로 선출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문학 섹션에 김혜순과 함께 이름을 올린 7명은 모두 미국 작가로 시인 콰미 도우스, 희곡 작가 카토리 홀, 환경·인권 운동가 겸 작가 리베카 솔닛 등



이다. 전체 회원이 1만4500명에 달하는 이 단체는 수학·물리학, 생물학, 사회학·행동학, 인문학·예술, 리더십·정책·커뮤니케이션 다섯 부문을 구분되며 내부 투표를 거쳐 매년 4월 신규 회원을 뽑는다.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 신규 회원들의 입회식은 올해 10월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